

백제금동반가사유상 진위논고 논란

중앙박물관 '모조품' 판정에 정영호 교수 '진품' 주장

지난해 5월 국립중앙박물관에 의해 모조품으로 판정됐던 백제금동반가사유상(百濟金銅半伽藍像)이 백제시대의 진품불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의학대 정영호 박물관장은 최근 한국문화사학회 학술지인 <문화사학> 제3호에 발표한 '백제금동반가사유상의 신례(新例)'라는 논문을 통해 "백제금동반가사유상은 제작기법상 전형적인 백제시대 양식의 진품불상"이라고 주장했다. 정영호 교수는 이같은 양식적 특색으로 △불상머리에 얹은 세련된 보관(寶冠)과 원만한 상호(相好) △반가부처의 무릎의 모양과 손가락의 놓임새 △머리 아래부터 양옆으로 드리

워진 환식(環飾: 고리모양의 장식) △왼쪽 다리부분의 화려한 연꽃무늬 등을 들었다.

지난 93년 가을 충남 부여군 부여읍 부소산 부근에서 우연히 발견된 이 불상은 높이 19cm에 오른쪽 발을 왼쪽 무릎

유상과 도교의 한 시간이 소장한 금동반가사유상과 비교한 결과 손목에 팔찌 장식이 있고 허리에 나비형 매듭이 장식돼 있는 등 양식과 기법이 똑같으며 제작연대는 백제말기인 서기 600년경으로 추정된다"고

통적 구조기법으로 보이며 합금성분이 삼국시대의 것과 유사하다"는 감정결과를 통보받았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이 불상을 감정했던 황수영박사(前동국대 총장)도 "양식 특징과 발견지의 층위, 발견된 장소가 백제 유물이 다수 출토된 부소산성인 점으로 미루어 백제시대의 국보급 진품이 확실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립중앙박물관측은 "당시 발견자의 증언내용이 이치에 맞지 않고 발견장소도 불명확한 점, 그리고 전체적인 조성양식으로 볼 때 10년 이내의 모조품이 분명하다"고 반대

"합금분석 결과 삼국시대 주조품 추정"

"발굴경로 불투명·조성시기 10년 이내"

에 얹고 의자에 걸터 앉은 채 손으로 턱을 괴고 깊은 상념에 잠긴 듯한 모습을 한 전형적인 반가사유상의 형태를 지녔다. 정영호 교수는 "대마도 정림사(淨林寺) 소장 금동반가상, 나가노현(長野縣) 소장 금동반가사

불상이다. 또 불상에서 채취한 푸른색 녹과 뒷면 하단 파손부위의 청동, 표면의 금동 등을 한국사 원연구소에 보내 성분분석을 의뢰한 결과 "아연이 검출되지 않은 점으로 미루어 고대의 전



◇진품여부 논란이 재연되고 있는 백제금동반가사유상.

입장을 명확히 해, 진위여부를 둘러싸고 학계의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재경 기자

고기가 물을 벗어나는 도리는

문 지난 5년여를 나름대로 공부를 해왔습니다. 제 자신 하루의 행주좌의 중에 모든 것을 놓고 이른바 무심관을 닦아 왔습니다. 그러다가 어느때 죽비 소리에 출렁임 원가를 느꼈습니다. 그로부터 처처에 부처님 니두심이 아난게 없고 예가 비로 불국토로구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고기가 물 속에서 자유스럽게 헤엄치고 노닐 수는 있지만 물 자체를 벗어날 수 없는데 그러면 물을 벗어나는 공부는 없는 것일까 궁금했습니다. 그 길이 무엇인지, 그걸 일컬어 중도라 하는 것이요 가르침 주시기를 바랍니다.

답 다 터진 것처럼 말씀하시는군요. 이 법에는 물도 없고 배도 없고 뱃대도 없고 청산도 없습니다. 정말 도리를 알았다면 다하고 달함도 없는 색 공이 물이 아닌 도리를 아셔야 합니다. 느낌만으로는 안됩니다. 실천이어야 합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귀신 뱀귀 털을 더 먹어도 안고 덜 먹어도 안고 기르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일이고 또 부처님께서도 여러모로 그렇게 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하지만 참나에 이르려면 놓는다는 그 생각까지도 놓아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수행방법을 말하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참나를 진정으로 믿는다면 놓는다 안놓는다, 끊어진다 안끊어진다가 없습니다.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어린애가 어머니를 하늘같이 믿듯이, 청지기가 주인의 말을 무조건 믿듯이 그런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진자로 믿는다면 순간순간, 생각각각 믿어야지, 놓아야지, 끊어야지 하겠습니까? 아니지요. 그냥 믿는다는 마음 그대로 이겠지요. 그래서 놓는다, 믿는다는 생각이 진짜이면 24시간 끊어질도 없습니다. "놓아지 놓아지" 하다가 "아차, 그만 놓는다는 것을 깨달았구나" 하는 분도 있는데 진자로 믿었으면 그 믿는 마음엔 시공이 없습니다. 24시간, 아니 한달을 잊고 지냈는데도 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처님을 철석같이 믿으면 부처님은 이미 내 마음과 들어야 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과는 3천년이라는 세월의 틈이 벌어졌더라도 3천년전의 마음이 나 지금 마음이나 들어 아니니 들어 떨어진 것도 끊어진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놓는다 끊는다, 놓아졌다 끊어졌다가 중요하게 아니고 믿음이 근본입니다. 놓

지 상 상 담

길은 묻는 이에 게

독자문의를 받습니다. 불법을 공부하는 중에 특히 신행에 관해 의문이 있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사신·팩스로 보내주시시오 접수되는 순서대로 응 답해 드립니다. 이 지상상은 조계종 한미선원 대행스님께 문 고 답을 들어서 편집자가 정리·게재해 드립니다.

보낼곳: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전화: (02)722-4162 팩스: (02)737-0698

中 불교조각사 연구 한눈에 본다

배진달씨 논저록목집 펴내 중국불교조각사에 대한 각국의 연구논문을 한눈에 찾아볼 수 있는 <중국불교조각사연구 논저록목집(민족사)이 나왔다.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사인 배진달씨가 엮은 이 책은 중국 불교조각의 도상학(圖像學)·양식·도상배경상의 문제 등 다양한 연구경험들과 연관해 크게 일반적 내용과 도상, 주제, 그리고 시대별 지역별 석굴별로 한·중·일 3국과 구미에서 발표된 논문을 정리하고 있다.

이 책은 편자가 지난 92년부터 2년 6개월간 대안국립대학 예술사연구소에서 중국조각사를 공부하던 기간에 들춰내 모아 온 것. 중국불교조각에 대한 연구는 19세기말 제국주의 시대에 서구열강이나 일본인들에 의해 시작되었다. 지금까지의 연구 성과는 시기별로 △서구·일본의 대륙진출을 계기로한 자료 조사(1950년 전후까지) △중국인에 의한 자체조사(1950~80년대 초반) △외국학자들에 의한 연구로 대별된다.

대각국사비 역주등 실려 가산학보 4호 나와

가산불교문화연구원(원장 지관)의 학술지인 <가산학보> 제4호가 나왔다. 이번 논집에는 △신라 화엄종 북악(北岳)조사 회랑(希朗)(재인환) △각운의 <선문영승설화> 연구(석정준) 등 논문 8편과 △개성 황향사 대각국사 묘지명(이지관) 등 국문교강역주 3편 등이 실려 있다.

"원효사상 핵심은 화쟁아닌 中道"

강상원씨 동대박사 논문 원효가 저술한 금강삼매경론의 근간이 되는 수행과 실천원리는 일미관행(一味觀行)에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상원씨(동국대 철학과 강사)는 94년 동국대 철학과 박사학위논문으로 확정된 '일미관행에 있어서 中道觀에 관한 연구: 원효의 금강삼매경론을 중심으로'를 통해 원효 철학의 본뜻이 화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중도를 중생들에게 시현(示現)함으로써 중생을 깨닫게 하려는 데 있다고 주장했다. 즉 원효는 부처님 출현의 근본목적에 철저한 이론의 부정과 일승(一乘)으로 통일 하려는 의지에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원효의 '일미관행(유·무와 斷·常의 二執을 떠나 중도의 실상을 관하는 법)'이란 부처님의 가르침을 觀하는 동시에 실천을 통해 자리아타행(自利利他行)의 보살행을 실천하면 성불할 수 있다는 가르침을 담은 수행방편.

직지사

대웅전

佛身普遍十方中 (불신보편十方중)
三世如來一切同 (삼세여래일체동)
廣大願雲恒不盡 (광대원운항부진)
汪洋覺海妙難窮 (왕양각해묘난궁)
衆會團圓諸如來 (중회원원주러래)
廣大深淨妙莊嚴 (광대심정묘장엄)

부처님은 우주에 가득하시니
삼세의 모든 부처님 다르지 않네
광대무변한 원력 다함이 없어

한국 사찰의 주련

권영한

넓고 넓은 깨달음의 세계 헤아릴 수 없네
부처님 앞에 대중들 모여 드니
넓고 깨끗하고 미묘한 장엄이로다

해설 직지사는 경북 금릉군 대항명 운수리에 위치한 신라고함(불지왕 2년, 418)이다. 창건자는 유명한 아도화상으로 전해지

고 있으며 절 이름인 「직지」와 관련한 이유도 세가 지나 전한다. 첫째는 아도화상이 선상에 도리사를 세우고 황악산을 향해 「저쪽에 큰 절자리가 있다」고 손가락으로 가리킨 것에서 유래된 것이라는 설이다. 둘째는 고려초에 능여(能如) 스님이 절을 중창할 때 자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 손으로 측량했다는 설이 있으며,

광대무변한 부처님 공덕 칭송

세체는 선종의 종지를 나타내는 '不立文字 直指人心 見性成佛'에서 유래된 것이라 설이다. 이 세번째 설은 직지사와 선종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다. 황악산을 병풍처럼 두른



◇직지사 대웅전 전경.

대웅전의 주련은 한마디로 부처님과 부처님의 공덕을 칭송하는 내용이다. 고성 영남의 한 대목인 부처님의 불교의 유추관과 주련의 위대한 가르침 그리고 그것에 귀의하는 중생들의 거룩함까지도 포괄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인동 경민교 교사>

말씀을 들어보니까 무심, 무심에 꽤나 인간함을 쓰신 모양인데 무심조차 놓아야 합니다. 꾸르면서 무심에 살아야지 무심에 인간함을 쓰면서 무심이 되고자 한다면 무심이 아닙니다. 나오는대로 닦는대로 다 놓아서 그것이 비어 나오면 고개를 들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자면 첫째로 내가 죽었다해도 둘째로 또 죽어야 할 도리가 있고 세번째로 또 죽어야 할 도리가 있습니다. 어린애를 낳았으면 키워서 공부시킬 것 다 시켜야 사회에 나가서 사람노릇 하게 되듯이 이치가 그러합니다. 상대성의 원리를 다 파악했고 또 자기가 실천하고 체험하게 될 때 비로소 한마디를 해도 한 데로 떨어지지 않는 법입니다. 명심하기 바랍니다.

고가는 마음에 잘 된 것도 안 된 것도 따로 구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잘된 것은 감사한 마음으로 되뇌고 안된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그 또한 나쁨이라는 생각으로 놓으면 그뿐이지요. 그리고 이렇게 풀 아닌 도리를 공부해 가다보면 이것저것 안팎으로 돌리고 보이는 경계가 있는데 그것은 다 도리를 알게끔 일깨워주기 위해 일어나는 것이니 속아서 안됩니다. 그것마저도 제 자리에 돌려 놓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 또한 믿음의 힘이지요.

긍정적 생각을 하며 살려 하는데

문 스님의 말씀을 듣고 저 자신 '일체를 주인공에 놓고 믿는다'는 생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힘든 일이 잘 해결된단디, 좀 아깝게 낫는다든지 하는 것은 수차 경험했습니다. 그로부터 저는 항상 저 자신이 미혹에 빠지지 않게 밝고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한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제 경우에 율바로 가고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최명연·부산 시허구 신명동>

제 그릇에 맞게 화두를 주시면...

문 스님, 저리고 내세울 것은 없지만, 또 저를 그릇에 비유하면 빈 것도 없고 비지 않은 것도 없겠지만 제 그릇에 한 말씀 담아주시면 화두로 삼을까 합니다. <이신유·충북 증원군 산척면>

현대불교

생활광고

본관은 독자 여러분의 뜻에 따라 꾸며지는 생활광고입니다. 최소의 비용, 최대의 효과 현대불교 생활광고에서 찾으십시오

● 생활용품 ● 개인입체
● 불교관련용품 ● 정보교환, 소식
● 자체음료 ● 안내
● 리플렛서 ● 신상품소개등

문의 (02)737-8881(광고국) 팩스 (02)737-0697

주문객

본지 36호 조계종 (행자교육원) 광고 중 북장·행자부(남·회색)를 북장·행자부(남·회색)으로 바로 갑니다.

이중 924-9211
고번호 925-4961

● 소모품 제공 ● 부속품 제공

정통 중국어 속성강좌

● 난방, 회고교 사설과 어학실습원 비 중국 사범대학 교수 초경강의 책임지도·기초반, 회화반, 유학반, 비지니스반

● 스님 유학반 모집(이미 출국유학중)
● 화위 및 자격취득 책임보장
● JW 202 유학허가 및 입학통지서 보장
● HSK 시험대비 중점 강의

中國語: 漢文: 書法

월일 6.30 - 22.00(9월 회기 유학생 모집)
특별반 14.00 - 18.00 일 10.00 - 18.00
정기 학원생 위업보정(수시접수)

상단: 대 (02) 246-8256, 246-8257

韓中語學院

원장: 중국 한민 사범대학 교장 겸 교수 중국 학위 심사위원(한국인 최초)
관여 1670호 기업인중상남

연꽃잉어화

전문작품

연꽃잉어화는 옛부터 집안의 생기와 영명의 화기를 가져오는 길화로 전해오는 바 생동감을 주는 산자공이 되도록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 실내의 벽화·병풍 및 액자와 작품
● 풍수사상작품(작품)은 주문에 의하여 풍수가로 특별 작품해드립니다.

시대 지평 외국 어디나 그림만 또는 도구작품을 해드립니다

우민(宇滿)화실

서울 송파구 철원1가길 17-1 전화 (02)3273-0081
공민구 국민은행 남영지점 822-24-0171-328(우민)

천혜의 기도도량
금수산 천진사

단양 팔경의 하나인 구담봉, 옥순봉을 굽어보며 금수산 품에 안긴 천혜의 기도도량 천진사 함께 기도하며 이 국토를 부처님 세상으로 가꾸려는 불제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있는 도량입니다.

● 조용히 머물며 기도 정진하실 스님 (비구니 스님이나 연로하신 스님도 좋습니다)께서는 연락 주십시오

● 당을 관리하면서 기도하실 보살님도 환영합니다.

● 연락처 단양 천진사: 0444-423-2085 서울 법천사: 02-762-2204

칫솔의 기술혁신 국제 특허품

Circle-B® 회전칫솔

과우모만 칫솔질하세요
상하 또는 돌려 닦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린반도 합니다.

5개 = 12,500원 10개 = 24,000원

● 온라인 동영상을 보실지 096-01-239051(서울상사)
● 전화 (02)556-3076-7 ● 팩스 (02)556-3078

72세 할거니가 본 제도를 이용하여 2년 만에 중졸·고졸과정을 거뜬히 마쳤습니다.

어려운 프로그램을 위한 불교용종·불교서적 관련 스님을 위한 선법화·영구 열가 주문제작 비디오·카드·성명집·단체용품 기획제작

720-1147(~8)

개인적 사정으로 학업의 기회를 놓치신 분을 위하여 학원에 가지 않고 가정에서 졸업장을...

한글반 2회 실시 4월·8월

회원모집중

국고 졸업과정 한글반·재수생·직장인·주부반

중학 졸업과정 ○ 읽기 편이된 최신 「강의해설교재」
○ 학교수업식 「강의 녹음, 학습
고교 졸업과정 ○ 천거한 1:1 「답답」 관리제,
대학 졸업과정 ○ 한글 속성 1개월 일제 터득 가능

신영희(72세, 할머니) · 중·고과정(24개월)
박은희(45세, 주부) · 중·고과정(5개월)

이성수(39세, 직장인) · 중·고·대과정(36개월)

특전: 학적보장 총정리문제집 제공
95년전원졸업목표(영·수)비디오제공(4시간 5분)
합격환 환승권리 전회전수(비밀보장 PM 9:00)
기요(영어·수학)가 약한 분을 위한 별도 해설집 제공

상단전화(비밀보장) (저녁 9:00까지 접수) **02)766-9090**

(수신사 부담) **080-023-4600**

희사취득전문교육 **대한교육평가기원**
우110-410 서울 중로구 인의동 해운안빌딩 2층 213호

관음손

어려운 프로그램을 위한 불교용종·불교서적 관련 스님을 위한 선법화·영구 열가 주문제작 비디오·카드·성명집·단체용품 기획제작

720-1147(~8)